



서울시, 연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지반안전 ‘탄탄하게’

지하안전영향평가·기초현황 등 연말까지 확정·관할 구청에 전달

올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안전 관리는 도심지 개발이 증가하고, 지하시설물 과밀화 및 노후화로 인해 각종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느때보다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이번 계획 안에 7개 중점 과제로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 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 지하안전관리 등을 주요한 목표로 꼽았다.

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해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할 구청에서는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해,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

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m 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한다.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평가항목이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지하를 개발함에 있어 지반의 안전과 관련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도심지 지반 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중장년층 일자리 모델 발굴·취업 지원

서울시, 중앙부처·기업과 협력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앙정부부처, 기업, 사회적기업과 힘을 모아 중장년층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돕는 ‘굿잡5060’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재단은 ‘굿잡5060’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일 오후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굿잡5060’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그룹, ㈜상상우리 등 이번 프로젝트의 협력·유관기관 관계자가 모여 신중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은 중장년 취업프로그램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핵심업무 역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관-공공기관-사

회적기업이 협력해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약 200명을 선발해 교육생 선발워크숍 및 핵심역량강화교육6주, 취·창업 멘토링 및 후속 교육3개월 등 신중년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와 매칭해 5년간 신중년 일자리 500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재단은 그동안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50+세대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 워크숍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의 인생3모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도모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5년 동안 신중년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기금을 지원한다. 신중년 특화 사회적기업인 ㈜상상우리는 신중년을 위한 핵심역량교육과 사회적기업 취업 매칭을 담당한다. /오진희 기자

혼밥·혼술 이어 ‘나 홀로 휴가’

여름휴가 계획한 직장인 ‘79.5%’ ‘혼자 보내겠다’ > ‘연인·친구와’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계획이 가장 많은 일정은 7월 29일~8월 4일까지였다.

1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공동으로 직장인 507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7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79.5%의 직장인이 여름휴가 계획을 확정했다.

여름휴가 기간은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가 겹치는 7월 29일부터 8월 4일 사이가 34.2%로 가장 많아, 이 기간 중 휴가지가 붐빌 전망이다.

이어 8월 둘째 주(12.8%), 8월 셋째 주(12.6%), 7월 넷째 주(8.5%) 순으로 조사됐다. 7월 마지막 주 앞뒤로 1~2주 사이에 대부분의 여름휴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휴가지로는 국내여행을 생각하는 직장인이 42.1%로 가장 많았고, 해외여행(18.1%), 휴식(17.2%) 순이었고, ‘계획 없이 지내는 것이 계획’(6.8%)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국내와 해외를 포함해 직장

인 10명 중 6명은 여름휴가 때 여행을 계획하는 셈이다.

여름휴가를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부(26.2%), 자녀(25.5%), 부모(15.8%)라는 응답이 많았고, ‘나 혼자 보내겠다’(11.9%)는 응답이 ‘연인이나 친구랑 보내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연인과 친구보다 ‘나 혼자’ 휴가를 보내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라며 “혼밥, 혼술에 이어 나 홀로 휴가가 여름휴가 트렌드로 확고히 자리잡지는 않을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금강산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지난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람회 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남북정상 회담과 북한의 비핵화 행보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헬성루 금강산도권 그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철뉴스

내일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개최

서울시-한국존슨앤드존슨

서울시는 오는 12일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서울 바이오허브에서 ‘한국존슨앤드존슨과 함께하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포럼은 ‘존슨앤드존슨이 바라본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통한 스타트업 성공 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은

연구·개발·상업화 과정에서 외부 기술을 활용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오전 포럼은 미국·상하이·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존슨앤드존슨 임원진이 참석해 자사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과 모델을 직접 소개한다.

아울러 서울 바이오허브 입주기업과 존슨앤드존슨 간의 개방형 혁신 진행 현황을 발표해 바이오 벤처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발암물질 고혈압약’ 대처 혼선에 불만 ↑

발암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고혈압 치료제 판매중지 둘째 날(진료일 기준)인 10일에도 일선 병·의원과 제약사 혼란이 계속되면서 환자는 물론, 의료 관계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불순물이 든 중국 제2차 화하이사의 발사르탄을 사용해 판매·제조중지 조치된 115종의 고혈압약을 갖고 있는 환자는 17만8536명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내 고혈압 진료 인원이 지난해 604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0%에 해당하는 환자가 문제 의약품 먹고 있던 셈이다. 여기에 섞여 들어간 불순물은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NDMA는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는 불충분한 ‘2A’ 분류군에 속한다.

환자 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전날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평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불순물 함유가 염려되는 약을 처방받았던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다시 찾으면 문제없는 약을 재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을 경우 조제 약국에서도 교환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또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해 환자들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병원 진료가 대부분 끝나는 오후 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일선 병의원과 환자들 사이에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안기중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서둘러 안전 조치를 해야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협조해 해당 의약품 처방받은 환자를 당국에서 확인하고 의료기관이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국어 교육전문가 200명 한자리 모여 ‘새 길’ 연다

이 대회는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교원들과 국내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다. 올해는 101곳 세종학당 교원과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한국어 교육 전문가 등 44개국 2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어로 빛은 꿈,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강연과 교원 연수, 문화 체험 등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서는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세종학당 홍보대사 배우 안성기가 참여한 ‘당신은 한국어 홍보대사’라는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문화포럼에서는 티브이엔(tvN) ‘어쩌다 어른’의 인기 강사 최진기와 7개 국어에 능통한 언어천재 조승연 작가가 각각 ‘소통의 언어로서의 한국어, 4차 산업혁명에 답하다’, ‘언어와 소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오진희 기자 val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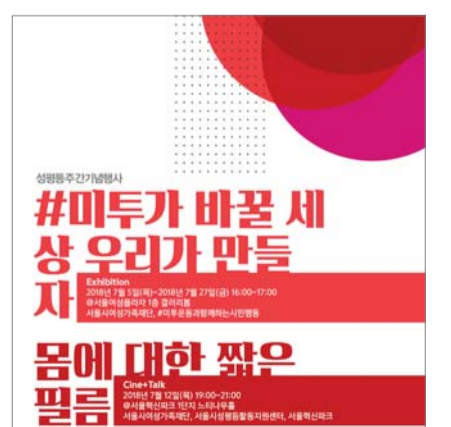
서울시 “성평등, 보고 듣고 말하다”

서울시는 성평등주간을 맞아 7월 한 달간 성평등을 주제로 한 강연·워크숍, 영화 상영, 전시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2일 오후 7시 서울혁신파크 1단지 연결동 느티나무홀에서는 여성의 몸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담은 4편의 단편 영화가 상영된다. 영화 상영 후에는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21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2층에서는 ‘청소년 #미투, 우리에게도 목소리가 있다!’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성평등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강연과 워크숍이 열린다.

오는 27일까지 서울여성플라자 1층에서는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의 활동기록을 담은 전시가 펼쳐진다. 행사 참가 신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